시민속으로 2017 / 5월 5주차

■ 연구원 주요일정

○ 05월 31일(水) : 주간회의, 사료읽기야간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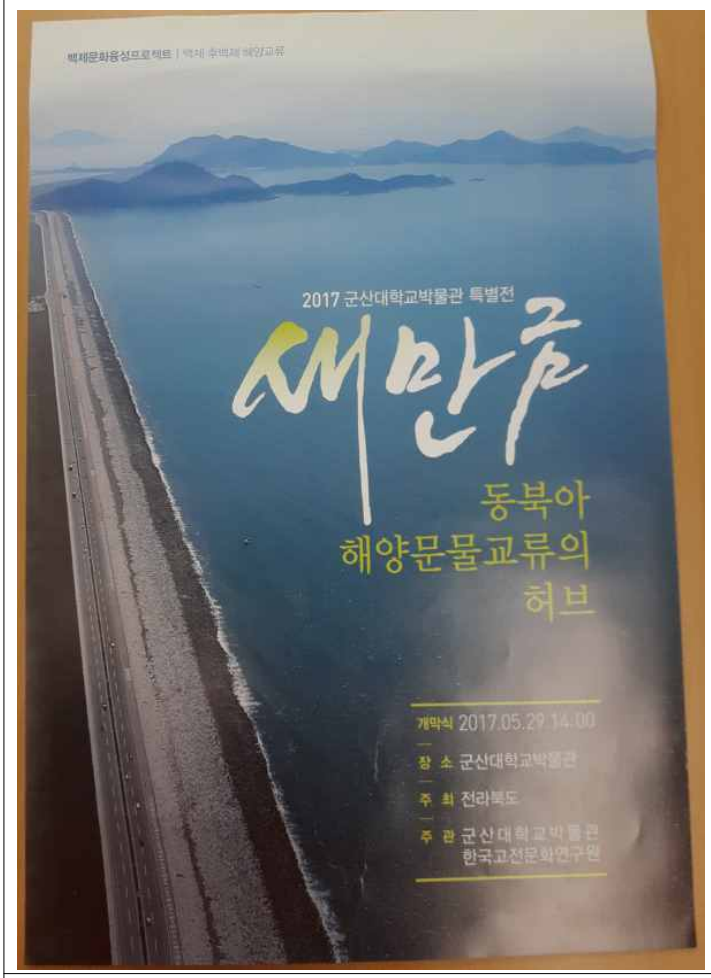
○ 06월 02일(金) : 운영위원회

■ 연구원 소식

○ 오항녕, 오창익 북 토크 콘서트 진행

- 5월 26일(金)에 우리 연구원 오항녕 평의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과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공동으로 저술한 <간신 -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을 주제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13호에서 북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원 회원을 비롯한 대학원생, 전주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자 친필 서명이 들어간 간신을 무료로 나눠드렸으며, 이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허브, 새만금』 특별전 (개막식 : 5월 29일 오후 2시)



우리 연구원이 2016년부터 전라북도와 함께 진행중인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동북아 해양문물 교류의 허브, 새만금』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개막식은 5월 29일(월) 오후 2시,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기 간 :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 진 행 :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교 재 : 『호남의사열전』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전주에 살고 계시는 **"서정화"** 님 입니다. 일찍부터 가입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 드디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함께하는 베트남 평화기행**

▮ **여행명**: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역사와 치유를 위한 베트남 평화기행

▮ **성　격**: 역사·문화·평화 기행

▮ **지　역**: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꽝남성, 호이안

▮ **여행기간**: 2017년 08월 20일(일) 오전 10시 ~ 2017년 08월 26일(토) 오전 7시 / 06박 07일

▮ **여행경비**

1) 항공료 (TAX. 유류할증료 포함)

해외: 인천↔호치민 / 베트남 국내: 호치민↔다낭

* 기준 항공가 44만원. 실제 항공 요금이 44만원 이상일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44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반납해 드립니다.

2) 현지 교통비 (전용차량, 도서간 이동편)

전용차량: 전세버스 35/45인승

3) 전 일정 숙박

3·4성급 호텔 (2인 1실) 5박

4) 전 일정 식대: 1끼 식대 평균 가격 8$ 이상

5) 투어비

호찌민시 시내 산책 / 반레 시인과의 만남 / 전쟁박물관 탐방 / 구찌땅굴 탐방/ 고엽제 피해자들과의 교류 / 남부여성박물관 탐방 / 빈호아사 한국군 증오비 참배/ 빈호아 초등학교 방문 및 장학금 전달식 / 빈호아 학살 생존자 도안응이아와의 만남/ 탄타오 시인과의 만남 / 밀라이 박물관 탐방 / 하미 위령비 참배 / 하미 학살 피해자 고(故) 팜티호아 할머니 조문 / 퐁니 위령비 참배 / 퐁니 학살 생존자 탄 아주머니와의 만남 / 후에 궁중아악 가족연주단 <사절아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6)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숙식비, TIP

7) <한베평화재단> 오퍼레이팅비

가이드 1일 200$ 외 통역비, 프로그램 기획 및 오퍼레이팅비

8) <한베평화재단> 길벗 여행경비(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투어비)

9) 인민위원회 허가 수속비

10) 지원비: 생존자 지원비, 여행지역 지원비

11) 선물비　　12) 해외여행자보험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　품

壯遊(部分)	장쾌한 유람(부분)
七齡思卽壯(칠령사즉장)	일곱 살에 생각 벌써 컸으니
開口詠鳳凰(개구영봉황)	입을 열어 봉황시를 읊었고
九齡書大字(구령서대자)	아홉 살에 큰 글자를 썼으니
有作成一囊(유작성일낭)	작품들이 한 자루를 이뤘지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시성이라 불렸던 성당시대(盛唐時代)의 시인. 널리 인간의 심리, 자연의 사실 가운데 그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찾아내어 시를 지었다. 장편의 고체시(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발휘하였으므로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시사(詩史)라 불린다. 주요 작품에는 《북정(北征)》,《추흥(秋興)》 등이 있다.

▌감　상

- 두보가 태어났을 때는 당조가 통일한지 100년이 되는 때였다. 농촌경제가 번영하고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상업과 수공업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다. 두보는 7살때부터 시습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습작의 처녀작이 봉황을 노래한시였다. 이 시기 두보 자신은 일본을 가보고 싶어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최상(最尙)이나 위계심(魏啓心)은 문단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중진이었다. 이들이 두보를 보고 한나라 때 반고(班固)나 양웅(揚雄) 같다고 했는데 두보의 재주를 짐작하게 하는 말이었다. 두보는 타고난 천성만 믿고 학문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다.

■ 발로 쓰는 유럽 풍경 [일곱 번째 이야기]

- 아테네 소크라테스 감옥 앞, 일촉즉발의 순간 -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에 태어난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알려진 그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은 죄목으로 독배를 마셨다. 그는 사약 마시고 누었다가 벌떡 일어나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꼭 갚아주게'라는 마지막 말로도 유명하다. 아테네하면 그가 먼저 떠올랐고 그곳에 가면 찾아보기로 하였으나 2005년 첫 여행 때는 위치를 잘 몰라서 그냥 오고 말았다.

2010년에는 마음먹고 새벽에 길을 나섰다. 시장 또는 시민의 광장이라 할 수 있는 아고라를 지나면 오른 쪽으로 필로파포스 산길이 보인다. 그 길 따라 올라 가면 소크라테스 감옥이 나온다. 물론 증거는 없지만 그 앞에 소크라테스 감옥이라는 안내판이 있다. 창살이 있는 감옥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는 산 정상으로 발길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싶더니 제법 큰 4마리의 들개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분위기상 나를 먹이로 보고 달려오는 것 같았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산속에서 굶주린 개떼를 만난 것이다. 순간 하늘이 노래졌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순간이었다. 어디로 피할 데도 없고 뛰어도 개들보다 빠를 순 없다. 머리가 하예 지는 상황이었지만, 개들을 마주보고 섰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펴서 좌우로 흔들면서 '얘들아 좀 천천히~'라고 읊조렸다. 개들은 먹이를 향해 노도(弩刀) 같이 달려 왔고 순간 '아! 타국에서 변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그런데, 맨 먼저 달려온 개가 넙죽 엎드리더니 꼬리를 흔든다. 이어 달려온 3마리도 역시 꼬리를 흔들면서 내 주위를 돈다. 마치 주인을 만난 것처럼- 그때야 개들의 태도 변화에 안심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같이 놀아 주다가 '고맙다, 잘들 있거라.'하며 헤어졌다. 개들의 행동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지난 주말, 후배들이 학예연구사 채용 시험을 치렀다. 2년 만에 치러진 시험이라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해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삼삼오오 시험을 치르러 내려가는 후배들을 보고 있으니, 7년 전 내가 학예연구사 채용 시험을 치르던 때가 생각났다.

시험은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치러졌다. 처음 치르는 시험이니 시험 유형만이라도 살피자는 생각으로 시험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험은 쉽지 않았고 아쉬워하며 시험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정신없이 아무 버스나 먼저 오는 것을 탔다. 시험 중간부터 부슬부슬 내린 비는 어느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보니 내가 탄 버스는 논산, 연산을 거쳐 계룡으로 가는 버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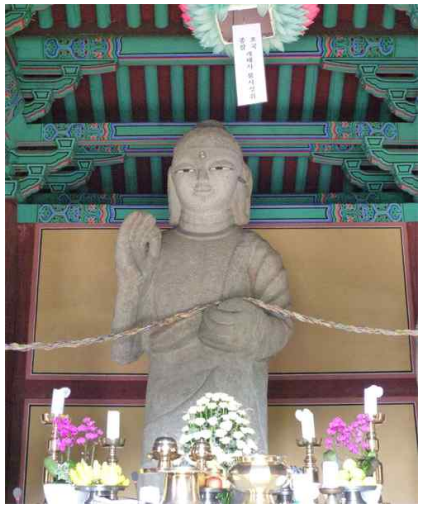
순간, 연산에 있는 개태사가 떠올랐다.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 마지막 통일 전쟁을 벌인 후 이를 기념하여 격전지에 세운 사찰이다. 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라, 주저하지 않고 연산에서 바로 내렸다.

산 속에 있는 다른 절들과 달리 비교적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개태사는 들어가는 초입의 측백나무길이 참으로 아름답다. 경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수령이 제법 오래된 감나무와 마주하게 되고, 그 왼편으로는 사찰의 중심이 되는 극락대보전이 있다.

<개태사로 향하는 측백나무길>

<개태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감나무>

이 전각 안에 개태사에 오고 싶었던 바로 그 이유, 석조여래삼존입상이 모셔져 있다. 개태사 창건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삼존불은 다른 곳에서 만났던 일반 불상들과는 그 모습이 많이 다르다. 얼굴의 생김이 동글동글하면서도 표정은 엄숙하며, 손은 마치 권투글러브를 낀 것 같은 점이 참으로 특이하다. 손을 펴서 손바닥을 앞으로 한, 미술사 용어로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는데, 시무외인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뜻이건만 왠지 저 손으로 한 대 맞으면 바로 기절해버릴 것 같다.



<석조여래삼존입상(보물 제219호)>

개태사에는 태조 왕건이 하사한 승려 500명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철확 등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유물도 많지만 그 분위기가 무엇보다 좋았다. 평지 사찰에다, 단청이 올라가지 않은 건물들도 많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비오는 일요일 오후, 고즈넉한 천년 고찰의 종무소 툇마루에 앉아 초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기차를 한없이 바라보기도 하였다. 개태사 앞에는 개태사의 이름을 딴 기차역이 있다.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폐역이지만, 운영 당시에는 개태사에 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쳤으리라.

<철확(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1호)>

개태사에서 마음을 다스리며 보낸 시간 덕분일까? 개태사에 다녀오고 한달 뒤,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실감한 순간이었다.